

이미혜 개인전<경리단길>

Meehye Lee solo exhibition <Gyeongridan-gil>

2013. 11. 7 (Thu) - 11. 27 (Wed)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이미혜작가의 <경리단길>전시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가 11월21일 저녁에 열렸습니다. 오인환작가가 패널로 참여한 이 대화에서는 이미혜작가가 이번 개인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전시에 포함된 개별작업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후, 오인환작가의 논평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요약본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녹취록 사용을 동의 받은 후 신중미모운영진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미혜작가 프레젠테이션>

이미혜작가의 전반적인 작업 설명을 요약해본다면, 작가는 경리단길이 최근에 핫플레이스로 부각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그 여파로 경리단길을 오랫동안 지켜온 오래된 가게들이 사라지면서 트렌디한 카페들로 대체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는 비단 경리단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삼청동길, 부암동길, 가로수길, 이태원길, 그리고 홍대앞 등 수많은 장소들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경리단길>전시는 개인들의 경험이 '선 검색 후 경험방식'을 통해서 무한반복 재생산되는 현상과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된 정보들이 경리단길과 같이 실재하는 장소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전시는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경리단길의 변화과정을 담고 있는 기록사진과 사운드 및 동영상 설치 작품으로 구성되며, 사람들이 타인의 경험을 인용하고 참고/참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 역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정 및 변형하고 재조합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작가는 이 전시를 통해서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경리단길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 검색 후 경험'의 시대에 경험의 실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였다.

이미혜작가는 전시에 포함된 작업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이어나갔다. 인터넷 블로그에 있는 텍스트를 차용하여 경리단길의 명칭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서로를 인용, 차용, 참고, 참조, 모방, 표절되는지를 보여주는 <경리단길 모놀로그>, 최근 몇 년 동안의 경리단길의 변화과정이 담겨져 있는 사진설치작업인 <기록사진: 경리단길 2008-2013>, 경리단길의 대표 맛집을 방문한 사람들의 경험을 수집해서 하나의 매뉴얼로서 제시한 사운드작업 <경리단길사운드매뉴얼>, 그리고 경리단길 맛집 검색 시 수집된 웹주소를 제시하며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작업 <검색어: 경리단길 ■■■■■>들에 대한 작업과정과 그 의미들을 설명하였다.

<이미혜작가와 오인환작가의 대화>

이미혜작가는 이번 작업과정을 통해서 과거 대중매체가 문화의 주도권을 가졌던 사회로부터 SNS나 블로그가 활성화되는 일인미디어사회로 전환되면서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느꼈다고 하였다

데 우선, 동일시가 가능한 나와 똑 같은 일반인들이 어떤 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는지 등을 일인 미디어들을 통해 접하게 되었을 때 훨씬 더 강한 동기와 자극이 부여되어 동세대간에 경쟁이 과열되거나 쏠리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이미지가 모든 경험담들의 주된 매개체로서 등장하게 되면서 그 변화라는 것이 훨씬 더 가속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작업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고 한다.

패널로 참여한 오인환작가는 이미혜작가의 이번 프로젝트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두 가지 지점에서 이야기했다. 우선 블로거, 블로그문화를 다루는 이미혜작가의 작업이 '이미지소비사회', 또는 '시뮬라르크라한 사회'라는 익숙한 문화이론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미혜작가의 이번 전시는 하나의 이론 또는 담론으로부터의 출발이 아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방식이 되어 있는 현실을 다룬다. 두 번째로,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이미지를 생산하는 작가가 아닌 이미지 체계를 개념적이고 정확하게 다루는 작가의 사례로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신디셔먼의 사진들에서 보이는, 이미지생산과 재현으로부터 이미지의 체계를 다루는 예술가로의 전환을 다룬 사례는 한국에서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한국에서 신디셔먼작업의 영향은 연출사진의 효과를 생산하는 작가들의 작업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져 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문화현상적인 의미에서 이미지의 차용을 다루는 작가들은 많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다룬 작가는 많지 않다고 판단한다. 오인환작가는 많은 작가들이 거대담론들을 통해 자신의 미술을 이론화하지만 그 거대담론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작업에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설명하는 지점까지 추적하는 작가들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혜작가의 이전 작업 <슈퍼 이베이어>와의 관계 또한, 동시대의 일상적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의 유사성과 다른 지점이 함께 논의됐다. 오인환작가는 인터넷 검색을 작업방식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연결점으로 보이지만 이전 작업에서 쇼핑이라는 개인적인 관심사가 소비라는 사회적 이슈로 연장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이번 전시는 경리단길이라는 장소가 작업의 출발이라는 점에 있어서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전 작업이 개인적인 반면 경리단길 작업이 좀 더 사회적인 관점이며 더 객관화 된 입장이라는 시각-은 개인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설명할 때 개인이 아닌 사회, 국가적인 주제, 민족의 문제와 같은 거대담론을 끌고 들어오는 전략은 한국사회와 미술계가 아직도 개인과 사회,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는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인환작가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은 미술의 사례에서 본다면 '차용'과 관련하여 이야기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차용미술은 서구의 70년대 80년대 차용미술과는 다른 문맥과 의미로 이해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차용은 서구에서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오리지널리티, '원본성', '진짜', '본질' 개념을 무력하게 하기 위한 대응체계로서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포스트모더니즘작가들이 이 복사와 차용을 통해 '원본성 공격하기'를 시작하게 된 지점이라는 점이 설명되었다. 서구미술에서 차용이라는 것은 과거의 문헌적 체계에 대한 비판이 중요하지만, '한국에 그런 원본성의 미술이 강력하게 존재했는지'를 되물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의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식민지라는 경험을 통해서 서구에서 유입되고, 의식화되어 왔기에 서구작가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면 우리에게 차용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이미혜 작가

의 작업을 통해 차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미술사적인 문제보다는 문화적인데 있다고 보았다. 우리에게 미술로서의 '원본성'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겠지만 이미 현실화된 차용의 문화 ('경리단길' 현상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를 다루는 '미술로서의 차용 미술'이라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미혜작가가 작업 방식에 있어서 차용의 문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차용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은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자기 비판의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 작업의 출발점이 문화에 대한 일종의 관찰, 조금 더 나아가면 비판까지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미혜작가와 오인환작가는 소셜네트워크라는 것이 새로운 소통방식이며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등의 기능이 있지만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여전히 집단화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적 특징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SNS문화가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관심사,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을 나타내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귀속시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추상화된 사회적인 커뮤니티를 통한다는 것이다. 이미혜작가는 항상 다수, 또는 다수가 말하는 문화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은 과거세대의 것만이 아니라 지금 세대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며 다수화된다는 것과 다양화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지점이라고 밝혔다.

오인환작가는 이미혜작가와 대화의 마무리하면서, 현재 미술계의 현상을 블로거들의 문화와 연결시켜볼 때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점, 블로거들이 이미지들을 퍼 나르고 실재와 이미지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유통시키는데 부정적인 미술 또한 이와 상당히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멋진 이미지를 생산하는 19세기의 낭만적인 예술가상, 또는 매력적이고 스타일이 좋은 작가나,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작가 등으로 유형화된 '유사작가'의 이미지들은 현재 굉장히 대중화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유형화 된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 작가들의 무비판적인 태도- 젊은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공모전지원서를 쓰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이미지로서의 예술가라는 것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력하며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날 예술가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날 미술이미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관객과의 Q&A>

이어졌던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현재진행형인 이슈를 다룬 작업인 만큼 디지털문화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끊임없이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와 그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을 접할 수 있었다. 다수가 지배적인 것을 선호하는 집단현상을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는 의견, 이미지를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을 구성해나가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보가 많아지고 조작 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가 줄어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미혜작가와 오인환작가는 인터넷 문화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지배적으로 고착되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고, 정보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개인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 결정장애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미지의 활용방식에 대한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